

제조업 불황 터널...경기전망 4분기 연속 '부정적'

ECONOMY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2분기 '92'... 전자제품·철강부문 등 호전 기대

71.2% 매출 목표 작년 수준 유지하거나 낮춰

광주지역 제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전분기 대비 소폭 올랐지만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2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13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 전망치는 전분기(84)보다 8p 상승한 92로 집계됐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트럼프발 관세 부과 정책이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BSI 전망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SI는 수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역 BSI 전망치는 추이는 지난해 2분기 101을 기록한 이래 4분기 연속(3분기 97.4분기 94. 올해 1분기 84) 기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경영환경별로는 매출액(85→94), 영업이익(78→83), 설비투자(90→94)가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생산활동 본격 재개, 신차 출시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다소 개

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한 기업이 71.2%에 달했으며, 투자 목표를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한 기업은 81.3% 조사됐다. 이는 지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통신(100), 철강·금속(117), 화학·고무·플라스틱(100)은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자동차·부품(79), 기계·장비(90), 식음료(53), 유채·시멘트(50)는 2분기 체감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제품·통신(88→100)'은 계절가전 중심의 가전제품 수요 증가, 해외 수출 증가 예상 등으로, '철강·금속(94→117)'은 업종의 성수기 시즌(가전, 농업 관련), 현대제철 반담빙 제조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증가, '화학·고무·플라스틱(79→100)'은 납품량 증가, 시장 경기 호조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봤다.

'자동차·부품(74→79)'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원재료비 상승, 경기 악화 등 부정적인

전망이 높은 상황이나 신차 출시로 인한 생산 및 수출물량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기업(67→108)은 계절가전 수요 증가,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기 호전'을 전망하고 있으나, 1분기 실적(67→67)은 기준치(100)를 상회하지 못하고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부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86→91)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내 경기 침체, 수출 감소 및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대용 기자 kdw0918@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국제방수케미칼을 찾아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 국제방수케미칼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장(청장 김우환)은 24일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우수제품 지정업체인 국제방수케미칼(대표 임정동)을 찾아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제방수케미칼은 부착성이 향상된 무기 복합방수제를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 받았을 뿐 아니라 해양폐기물인 폐각을 제

활용한 친환경적인 도막방수제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방수제 최초로 환경친화기술을 획득한 지역중소기업이다.

김우환 청장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공공조달 집합이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현대차·기아, 올해 美누적판매 3000만대 돌파

39년만...작년 170만8293대 '역대 최대'

현대차·기아가 올해 미국 누적 판매 3000만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1986년 미국 시장에서 첫 판매를 개시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930만3995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판매량은 현대차 1711만6065대, 기아 1218만7930대다.

누적 판매 3000만대까지 남은 대수는 70만대로,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역대 최대 170만8293대(현대차 91만1805대·기아 79만6488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하면 올해 중반께 3000만대 돌파가 유력하다.

1986년 1월 현대차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엑셀'을 미국에 처음 수출한 이후 39년 만의 기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중 하나인 미국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왔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1992년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1994년부터 세피아, 스포티지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사베너에 그룹 기준 세 번째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연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는 1990년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11년 1000만대, 2018년 2000만대 기록을 차례로 세웠다.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25년이었지만 또다시 1000만대를 더하는 데에는 7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는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기아는 쏘렌토였다.

현대차·기아는 2014년 기아 쏘울EV를 시작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했다. 특히 2022년에는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기반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이 출시되며 판매를 견인했는데 지난해 총 12만3천861대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며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양경제청-중국 중산그룹 기업교류 확대 등 업무협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중산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산그룹은 지난 2014년 설립돼 산업 및 기업 정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투자 펀드와 기업 투자부문에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300억 위안(약 6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만권의 유망투자기업 소개, 양국 간 산업 협력 및 기업 교류 확대, 광양항을 활용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수출입 활성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중산그룹 회장은 "한국 내 경제와 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인 광양만권과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 에너지와 물류분야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사에 광양만권을 글로벌 시장 거점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중곤 광양경제청장은 "한국 내 중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우리지역이 중산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계기로 중국기업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양 지역 간 산업과 기업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천 기자 kkkjin@gwangnam.co.kr

농어촌공사, 기후 예방·대응 역량 강화

시설물 점검·취약시설 관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시설 설치, 시설 점검과 보강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 대응 훈련 등 대응 역량을 향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 3427개 농업용 저수지, 1026개의 배수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을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개보수를 진행한다. 또한 저수지와 배수장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재난 취약 시설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전남신보, 위기 중소기업 보증 지원 박차

중기일자리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전남도 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일자리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국내 정치·경제 상황 하에서 내수 침체와 글로벌 관세전쟁, 환율 폭등 등으로 내외위환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추천과 보증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편의 제공,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홍보 강화, 상호 내부직원 교류를 통한 협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전남신보는 이번 협약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 300억원 규모의 소기업 지원 특별보증을 출시, 업체당 2억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정현아 기자 aura@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상충동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작 사기꾼 브로커